불자 세상보기

'말'이 '말'을 가로 막는 사회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살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무심코 한 말이 그야말로 무서운 결과로 되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반대로 진심을 담은 말 몇 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힘이 될 수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기도 한다. 그래서 말은 참으로 요물 덩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자기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제삼자에게 전해졌을 때에는 전혀 엉뚱한 말이 되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정작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능하면 입을 꾹 다물게 되는 것은 그만큼 말의 후유증을 앓은 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말은 자칫하면 세 치 혀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설화(舌禍)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거듭 경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최근 야당의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켜 이른바 '귀태(鬼胎)'의 후손이자 따라서 대통령 자신도 '귀태'일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여야정치권이 모든 정치일정을 잠정 중단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귀태'란 말은 중국에서는 '마음속에 숨겨둔 악의'를 뜻하는 말로 쓰였으나 일본에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모양이다. 어느 일본 작가가 일제의 1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로 표현하는 바람에 엉겁결에 우리도 그 뜻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누가 듣더라도 썩 유쾌한 말은 아닌 것 같다.

보도된 대로 만약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귀태라면 논리적으로 그의 자식인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귀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귀태란 말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자살폭탄이나 다름없는 단어인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결코 이 세상에 태어나선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곱씹어볼수록 얼굴이 붉어지는 그야말로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그동안의 정치적 맥락과 전후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아니 알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리라. 다만 우리는 그와 같은 천박한 말이 예사롭게 오고가는 한국사회의 품격과 자존감을 스스로 부끄러워할 따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적 언어생활이 이렇게 까지 피폐해진 데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환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 상에는 끊임없이 자극적인 말들이 생산되고 또 실시간으로 소비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조롱과 막말, 음담패설, 선동,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있다. 지면상으로는 도저히 옮겨 적을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말들로 도배질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의 '막말 정치'와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경쟁'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이번 민주당 대변인의 설화사건도 그와 같은 사회분위기의 일단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그저 씁쓸하기만 하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자는 말인지? 막말논쟁의 찬반여부는 정치적 입장 차이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저 한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의심스럽게 만들 뿐인 것이다.

잘 알고 있다시피 불교에서는 말과 관련된 일체의 잘잘못을 가리켜 구업(口業)이라고 부른다. 아마도 이번 귀태발언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욕에 해당하는 악구(惡口), 그리고 악구 가운데서도 최악의 악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모든 업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가 따르게 마련이다. 제발 당부하건대, 정치인들은 서로 막말만 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인 민생(民生)으로 회귀해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쇠꼬챙이에 찔린 혓바닥을 내밀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지옥도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 서로 그런 일만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발언대

한겨레 칼럼 달라이 라마 폄훼 논란

달라이 라마 흠집내기, 손으로 달 가려라

SNS가 한겨레 정문태 국제분쟁전문기자의 '환상을 먹고 자란 세계 평화의 우상'으로 뜨겁다. 평생을 평화운동에 헌신해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던 달라이 라마를 미국과 서구 열강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16년 동안 분쟁지역을 취재해 온 기자가 쓴 칼럼이라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신빙성이 들게 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불교인들은 정문태 기자의 칼럼에 의의를 제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교모하게 비틀어냈다는 게 그 이유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실었다. 그 중의 일부를 발췌했다.

〈편집자 주〉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달라이 라마를 향한 악의에 찬 발톱을 감추고, 사실 관계를 교묘하게 비트는 이런 기사가 실린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부끄러움을 알리고자 몇자 적는다.

신정체제의 수장이라고?

불교는 신을 모시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 정교일치 체제라 해야 한다. 망명 후 2003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때까지 달라이 라마는 최대종파인 겔룩파의 수장이자 통치자였다. 그러다 2003년에 티벳인들이 직선으로 총리를 뽑고, 지난해 3대 총리를 뽑아 이제 정치적 결정은 망명정부의 총리가 전적으로 한다. 12년만에 정치권력은 세속으로 완전히 이월된 것이다. 지금은 그의 영향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한들 정치문제에 결정권이 없다. 정문태 기자의 눈에 지금도 신정체제를 하거나 종교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아랍국가들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다. 그것이 무조건 문제라고 보는 거야 말로 서구식 잣대 아닌가.

무슬림 희생에 침묵했다?

몇년 전 "달라이 라마가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칭찬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본문에는 "전쟁은 안된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에서 인명살상을 줄이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다는 내용이었다. 악의적인 보도와 제목달기였다. 외신도 달라이 라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기에 그렇다. 입장이 오해될 여지가 있고, 그 점을 비판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라크-아프간 전쟁에 침묵했다면서 무슬림들의 희생에 침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9.11테러 직후 달라이 라마는 "미국이 보복해서는 안된다"고 용기있는 성명을 냈다.

대중국 봉쇄정책의 하수인?

중국의 침략으로 티베트인들 600만명 중 120만 명이 학살됐다. 세계에 흩어져 13만명의 망명 티베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 티베트인들이 택할 방법은 무엇인가? 극단적 테러주의를 택하는 대신 전 세계의 지지와 지원이라는 방식을 티베트는 선택하고 있다. 일제 치하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설움을 받았는가. 역지사지해보라.

달라이 라마가 성역일 필요는 없다. 그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격이 있어야 한다. 전쟁과 평화, 비핵화와 군비경쟁 중단과 같이 그가 평생 일관되게 언급 해온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어느 특정 발언을 그의 전부로 둔갑시키고, 거기서조차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몇 단어를 뽑아 비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장담컨데 교묘한 왜곡을 하지 않는 한, 달라이 라마의 가면을 벗길(?) 그런 진짜 팩트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이 가공한 거짓 정보 외에는.

이제라도 당사자가 부끄러움을 알길 바란다. 그게 달라이 라마뿐만 아니라 119명이 소신으로 중국정부에 항거한 식민지 티베트 민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社說

태고종 새 총무원장에 바란다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에 前 중앙종회의장 도산 스님이 당선됐다.

7월 18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제 25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총 146명 중 68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당선증을 교부받은 직후 도산 스님은 "애종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태고종단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며 "종무행정을 개편해 종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문제를 종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태고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50여억원에 달하는 악성 부채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면 이번에 새 총무원장이 된 도산 스님의 어깨가 여느 때보다도 무겁다.

도산 스님은 이 문제에 대해 6월 18일 출사표를 던지며 "종단 부채는 가장 먼저 꺼야 할 발등의 불이므로 종단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책임 있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보통 기성 정치인들은 공약은 단지 공약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신뢰와 신망이 상징인 종교지도자인 총무원장은 부처님 앞에 맹세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에는 유권자가 기존의 3배가 넘는 146명이 참여했다. 유례없는 최대의 유권자였다. 그만큼 이번에 선출된 도산 스님은 종도들의 지지를 크게 얻은 셈이다. 9월 22일 시작되는 임기까지 이제 두 달여가 남았다. 그 시간 동안 태고종단의 새로운 개혁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종무행정 투명화, 승가전통 회복, 종단 재정 안정 등을 3대 공약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그 약속들이 충실히 지켜지길 바란다. 그것이 도산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뽑아준 종도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다. 이제 4년간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사찰 브랜드화는 시대 과제

유수의 기업들은 자신의 CI(Corporate Identity)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한다고 한다. 이유는 자신들의 기업 철학과 가치를 이미지에 담아 고객들에게 전달하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불교계에서도 이런 CI가 활용되고 있다. 일명 'TI(Temple Identity)'다. 조계사의 경우 지난 4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웅전에 있는 청사자와 신중단의 동진보살을 마스코트로 형상화했으며, 봉은사는 2008년 TI 선포식을 갖고 심볼마크를 통해 한국불교를 알리는 대표사찰로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원 봉녕사는 2012년 7월 봉녕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TI를 만들었고, 한마음선원은 일찍이 TI를 활용하고 있다.

이미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 종단들은 자신의 문장을 이미지화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노력해 왔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는 일선 사찰들까지도 확산된 것이다.

이들 TI들은 사찰만의 특징을 형상화해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또한 티셔츠, 책갈피, 명함, 배지 등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적지 않은 사찰들은 이 같은 TI를 통해 포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제는 교구본사나 대형 사찰 단위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교의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TI가 20~30년이 지나면 좋은 역사적 사료가 되기 때문이다. 대웅전이나 불상 등 전통적인 불교를 소재로 TI를 만들기 보다는 사찰의 특징을 살리면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충고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자신의 가치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도 이제는 필요한 시대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의 특성을 브랜드화하는 TI는 불교를 대중화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